

Arts Friend

 -Arts, Your Arts!
ULSAN

9
2020
Vol. 237



〈Bouquet of Sunflowers, Claude Monet, 1881〉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Events

울산시립무용단 여정을 잇다	04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1회 정기연주회	06
울산시립합창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08

Culture Contents & Arts Class

문화콘텐츠 태화강백리길 로드시어터	10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14

Exhibitions & Special Performance

기획전시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展 · III	16
기획공연 변개맨	17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9월호 통권 237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변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 226-8241 ~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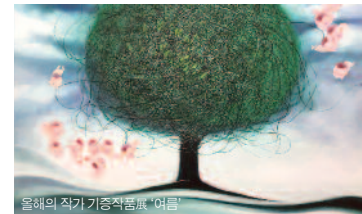
Arts & Story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7 환상적인 괴석그림, 몽인 정학교	18
커뮤니티 아트 6 미학보다는 공동체의 창의성을 위한 예술	22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6 코로나 시대의 카르멘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	26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의 꿈, 희망, 전설 그리고 땀	30
미학의 눈 작품해석과 감상 6 흙의 언어, 흙길의 작가	34



Information

9월 공연·전시가이드	38
공연일정	40
전시일정	42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4
유료회원 특별혜택	45
유료회원 가입 안내	46
협약점 이용방법	47



여정을 잇다

울산시립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초대 안무자 최은희, 2대 안무자 원필녀, 3대 안무자 이금주
국립무용단 손인영 · 전북도립무용단 여미도 · 대전시립무용단 황재섭
강원도립무용단 윤혜정 예술감독이 선사하는 춤의 향기

울산시립무용단은 오는 9월 3일(목)과 4일(금) 양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역대 안무자를 비롯해 국립무용단 손인영 · 전북도립무용단 여미도 · 대전시립무용단 황재섭 · 강원도립무용단 윤혜정 예술감독을 초청해 <여정을 잇다_예술감독전>을 연다고 밝혔다.

울산시립무용단 홍은주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지나온 20년 여정을 화려하게 재색하고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가는 타 시·도립 예술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작품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전통 '태평무', '산조춤'과 시대 흐름을 담은 신新 전통 '남색끝동', '장한가' 등을 비롯해 울산 태화강 물의 여정을 스토리로 풀어낸 '수작 水昨', 울산 산업현장의 노동을 주제로 한 '크레인의 날개' 등 컨템포러리(현대)를 선보인다. 2000년 12월 1일 창단된 울산시립무용단은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무대 예술화한 작품으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국악 반주단이 편성되어 있어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문화도시 울산의 지표가 되고 있다.

매년 2회 치러지는 대규모 정기공연과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공연, 그리고 찾아가는예술단 무대를 통해 연 60여회 작품을 선사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캐나다,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등 세계 굴지의 무대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도시 품격을 높였다.

홍은주 예술감독은 "울산시립무용단과 2년 남짓한 인연 가운데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벅차면서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춤 하나만을 붙잡고 걸어온 나의 여정에 항상 좌표가 되어준 고 배명균 스승의 말씀 '예술은 100점이 없다. 100점을 향해 갈 뿐이다.'를 되새기며 진심과 열정을 담아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 춤으로 궁극의 아름다움에 이르고자 하는 단원들의 의지도 결연해보였다. 울산시립무용단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역대 안무자 선생님들과 창단 20주년 무대가 갖는 그 특별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타 시·도 예술감독님들이 함께 하는 이번 뜻깊은 자리에 무용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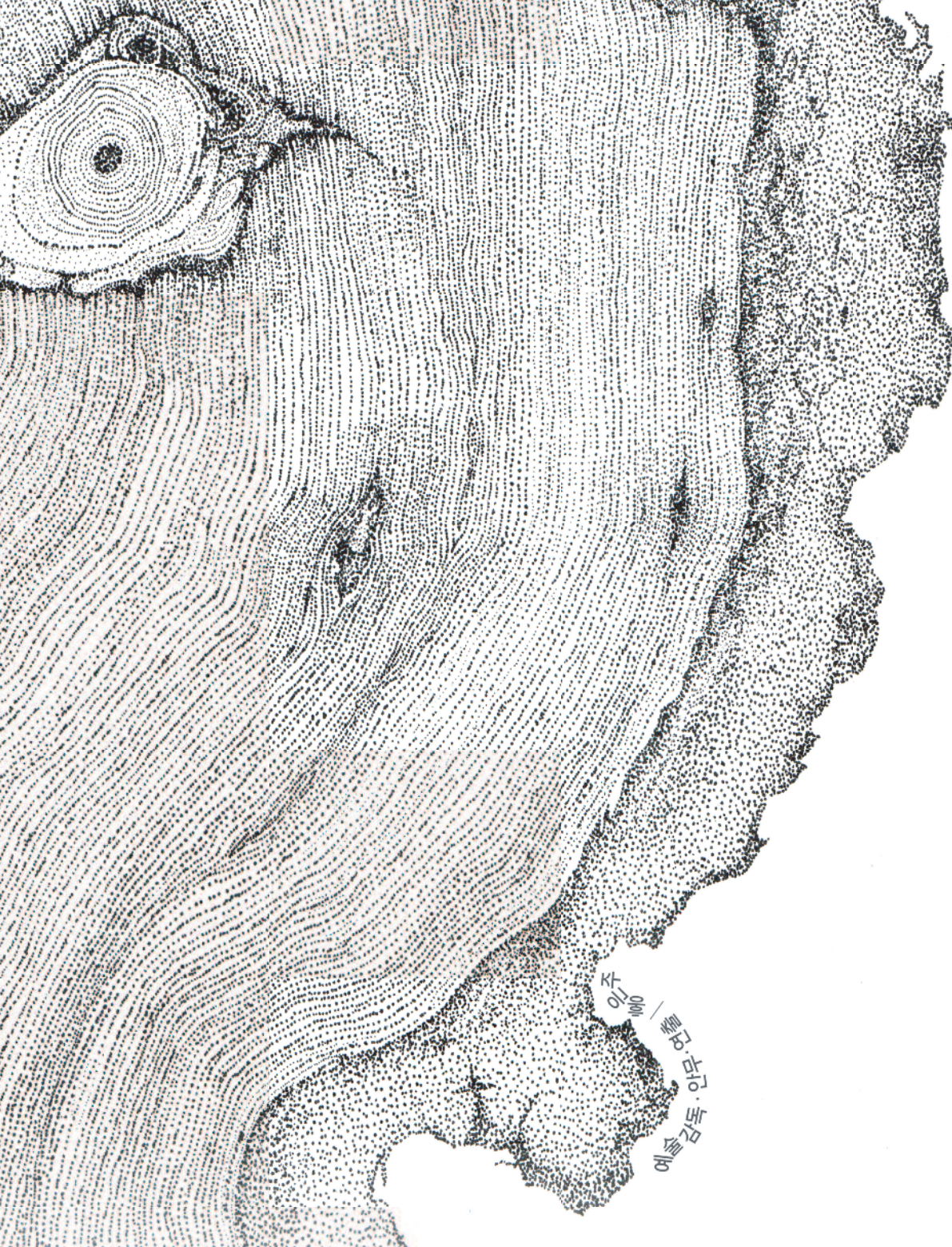
9.3. THU

황무봉명무 산조	최은희
비상	원필녀
한영숙류 태평무	이금주
심심살풀이	홍은주
크레인의 날개 中	울산시립무용단
진도복춤	홍은주 & 울산시립무용단

9.4. FRI

심심살풀이	울산시립무용단
남색끝동	여미도
진쇠춤	윤혜정
짚 농현	손인영
장한가	황재섭
부채현금	홍은주
수작 中	울산시립무용단
진도복춤	홍은주 & 울산시립무용단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정을 잇다

U
ULSAN
THE KOREAN CITY

울산시립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예술
강독제

카
이
영
|
홍
금
주
|
국
립
무
용
단
예
술
감
독

| 예술감독



안무·연출 | 홍은주

| 특별출연 - 역대 안무자



초대 안무자 | 최은희



2대 안무자 | 원필녀



3대 안무자 | 이금주

| 특별출연 - 타사·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국립무용단 | 손인영



전북도립무용단 | 여미도



대전시립무용단 | 황재선



강원도립무용단 | 윤혜정

2020. 9. 3.(목)~9. 4.(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전석 1만원(회원 30%, 단체 10인이상 20%, 학생 및 청소년 50% 할인) 공연문의_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2020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1회 정기연주회

최상의 클래스로 최고의 클래식을 선사하는
2020 Masterpiece Series III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20 마스터피스 시리즈 3가 개최됩니다. 이번 연주회는 '송유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2019년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4위에 입상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진행됩니다. 실력 있는 협연자와 베토벤의 걸작들과 함께하는 [마스터피스 시리즈]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랍니다.

프로그램

드보르자크 /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104
Dvořá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Intermission 휴식

베토벤 / 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68
Beethoven / Symphony No.6 in F Major op.68

출연진



지휘자 송유진

러시아 St. Petersburg 국립 음악원 학부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Peter Great' 국제 지휘학교 1위
Wiener musik seminar 지휘 부문 1위
2009 ~ 2011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감독 및 지휘자 역임
중앙대, 서경 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첼로 문태국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 국제 콩쿠르 1위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 첼로 콩쿠르 1위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1위
2016년 제1회 아노스 스타커상 수상
2019년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4위

울산문화예술회관 운영알림

1. 공연장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입장 전 증상여부(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3.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체크인 또는 방문리스트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연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에서 환호 및 함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검색

※ 전자출입명부도 같이 실시합니다.

원활한 입장을 위해 사전에 QR코드를 발급해 두시어 대기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1회 정기연주

마스터피스 시리즈 III

MASTER PIECE

Series III

M



지휘 송유진
Conductor Eugene Song



첼로 문태국
Cello TaeGuk Mun

Program

드보르자크 |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104
Dvořá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Intermission 휴식

베토벤 | 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68
Beethoven | Symphony No.6 in F Major op.68

420석 한정으로 예매를 받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티켓가격_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2020. 9.11. Fri. 8PM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시립합창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마니피캇》(Magnificat, BWV 243)는 성모 마리아 찬가이며 누가복음 제1장 46-55절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에 바흐가 서정적인 음악을 부여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마니피캇》은 1723년 라이프치히에 부임한 바흐가 크리스마스 저녁 기도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이 찬가는 기도문으로 불리며 마리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사촌 엘리사벳도 곧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를 드린다.

《마니피캇》은 교회 저녁 예배를 위한 음악이었으나, 교회 최고 축일인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령강림절에 주로 다성곡으로 연주되었다. 《마니피캇》은 첫 단어 '찬미하다(Magnificat)'를 곡명으로 정하였으며 라틴어인 '찬미하다'의 3인칭으로 시작됨으로써 찬미가의 이름이 되었다.

처음 작곡된 《마니피캇》은 E♭ 장조로 쓰여 졌지만, 1732년부터 1735년 사이에 바흐는 《마니피캇》을 다시 수정하여 D장조로 조성을 옮겼으며 크리스마스에 맞게 작곡된 4곡의 삽입곡을 삭제하고 악기 편성도 바꾸었다. 이러한 음악적 변화는 아주 효과적인 결정이었고, D 장조의 《마니피캇》을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회음악으로 만들려는 바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이 연주되는 D 장조의 《마니피캇》은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부활절이 나 성령강림절의 예배에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마니피캇》은 기쁨이 넘치는 작품으로, 레치타티보가 없고, 다카포 아리아가 배제되어 있으며, 라틴어 가사에 첫 주제가 마지막 합창에 재등장한다는 관점에서 칸타타 작품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마니피캇》은 바흐의 교회 음악중 선율이 가장 서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지휘자 이창호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오보에 학사 (부전공 성악)
템플대학교 음악대학 오보에 석사 (부전공 오케스트라 지휘)
템플대학교 음악대학 합창지휘 석사 (부전공 성악)
공군 군악대장 및 지휘자 역임 (공군대위 전역)
Mendelssohn Club in Philadelphia 부지휘자 역임
Bucks County Choral Society 부지휘자 역임
Temple University Choir 부지휘자 역임
Temple University Orchestra 부지휘자 역임
2019년 11월 대구시립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

2019년 6월 광주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 연주회 객원지휘
2016년 8월 대구시립합창단 기획 연주회 객원지휘
Helmuth Rilling, Oregon Bach Festival 예술감독
Alan Harler, Temple University 합창지휘 교수
Louis Biava, Temple University 오케스트라 지휘자
Philip Cho, Temple University 성악과 교수
현) Philadelphia Master Chorale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Haverford & Bryn Mawr College 객원교수

프로그램

1부

Magnificat / J. S. Bach

- Magnificat
- Et exsultavit spiritus meus
- Quia respexit humilitatem
- Omnes generationes
- Quia fecit mihi magna
- Et misericordia
- Fecit potentiam
- Deposuit potentes
- Esurientes implevit bonis
- Suscepit Israel
- Sicut locutus est
- Gloria Patri

휴식

2부

현대 미국합창

- My Soul's been Anchored in the Lord
Moses Hogan
- Shenandoah / James Erb
- Alleluia / Jake Runestad

위로와 희망의 노래

- 아! 대한민국 / 우효원
건·곤·감·리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J.S. BACH MAGNIFICAT D-Major

바흐 마니피캇



객원지휘 이창호



소프라노 김성아



소프라노 박인경



알토 정지윤



테너 박현민



바리톤 최대우

2020. 9. 22.(화)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_ R석15,000원 S석10,000원

할인_ 회원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문의_ 052 275 9623 <http://ucac.ulsan.go.kr>

관람등급_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태화강 백리길 역사와 문화가 뮤지컬로 피어나다!

뮤지컬
3부작

태화강 백리길 로드시어터

1부
‘신라-천년사직의 꿈’

9월11일(금), 12일(토), 13일(일) 오후 7시30분
선바위공원 숲속공연장

2부
‘도산성 1597’

9월18일(금), 19일(토), 20일(일) 오후 7시30분
학성공원(울산왜성)내 특별공연장

3부
‘반구대 암각화’
(원작 태화강)

9월25일(금), 26일(토), 27일(일) 오후 7시30분
태화강국가정원 느티나무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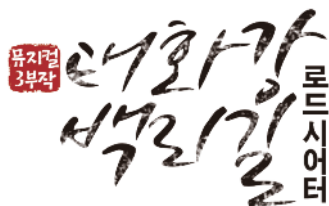


태화강백리길 아득한 신화!
역사와 전설이 뮤지컬 3부작으로 피어난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둘째왕자!
 울산김씨의 **시조 김덕지**가 지키고자했던 신라 천년사직!
 문수보살, 범서 헛고개 망성리의 **천년 설화!**

임진왜란 정유재란 울산의 민초들이 겪었던 **처절한 삶의 여정!**
 울산의병들의 충의 정신!

귀신고래가 돌아오길 소망하던 반구대 암각화 고대인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사랑!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광웅



김준겸



정지윤



박인경



서지유



1부 「신라-천년사직의 꿈」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과 울산 문수산의 문수보살과 울주군 범서읍 히고개와 망성리 설화를 소재로 뮤지컬로 창작된 '신라-천년사직의 꿈'은 경순왕의 둘째왕자이자 울산김씨의 시조인 학성부원군 김덕지가 지키고자 했던 신라 천년사직의 비극적인 마지막 여정을 표현한다.

2부 「도산성 1597」

임진왜란 당시 울산의병들의 활약과 정유재란 도산성 전투의 처절한 기록이 뮤지컬로 표현되는 '도산성 1597'. 울산의 민초인 껍쇠는 평범한 쇠부리꾼으로 살아가길 원했으나 여동생 송이는 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던 연인 달래는 퇴각하는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일본 큐슈 구마모토로 끌려가게 된다. 달래를 구하려던 껍쇠는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된다.

3부 「반구대암각화」(원작 대화강)

바위그림이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제의를 올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태화강나라에는 언제부터인가 귀신고래가 돌아오길 앓고 있다. 귀신고래가 돌아오길 염원하며 제의를 올리는 날 태화강에 미리별과 그의 아들 미르가 나타난다. 한편, 왕자 미르와 미리별이 탈주 한 것을 알게 된 북방의 칸 해부루는 귀신고래 바닷길로 침략을 명령한다. 세월은 흘러 미르와 반구대암각화의 신녀인 아라는 사랑을 하게 되고 해부루칸은 오랜 전쟁의 여정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고 처절한 전쟁이 일어난다.

출연 | 이광용 김준겸 정지운 박인경 서지유 이기동 하광준 정호윤 장민석 한수경 김성훈 송인경 김마리 배채연 최소혜 문은지 이혜솜 정화현 이성원 구태우 최현준 하희원 김주현 김하나 이소영 변창일 김유성 김영성 김재현 허성준 김규성 김지호 서금비 김소윤 이주안 김도연 극작 | 박용하 연출 | 박용하 한수경 안무 | 홍이경 작곡 | 강상구 음악감독 | 이광용 하광준 기획제작 | 박유리 김성훈 연기트레이너 | 김준겸 조안무 | 최소혜 문은지 무대감독 | 주진 조연출 | 김수경 손휘진 제작총괄 | 김창중 기획홍보팀장 | 김진홍 제작운영PD | 노영의 이지현 이동길



박용하 | 극작·연출

【주요작품】

- [귀신고래회유해면] 2005년 대한민국연극제 대통령상, 희곡상
- [천년의 수인] 2003년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 [처용은개운포에없다] 1999년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
- [장승들의 귀로] 2001년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
- [눈섬의 노래] 2008년 거창국제연극제 희곡상
- [아사날엇디하릿고] 2007년 고마나루향토연극제 금상
- [울돌목] 2010년 대구연극제 대상,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 울산광역시 문화상, 울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희곡상
-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인상 수상 외 다수
- [살타-울산산티아고], [헛릿], [리어왕], [한씨연대기]
- 창작뮤지컬 [태화강], [박상진], [이에]
- 악극 [갯마을], [불매], [남창장날] 외 다수

「태화강백리길 로드시어터」 뮤지컬 3부작 작업 NOTE

태화강 백리길에서...

습한 기운으로 도시를 휘감던 장마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장마의 끝자락에 태화강 백리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47.54km의 태화강 백리길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물의 길은 되돌아 올 수 없지만 그 강물과 함께 살아온 인간의 길은 마을과 마을로 이어져 있습니다. 상류와 하류사이 물가의 길을 오고 간 삶이 있습니다. 태화강은 자연의 길과 인간의 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쌀바위, 백운산 탐골샘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은 구량천(九良川) 반곡천(盤谷川)과 합류하여 대곡천으로 흐릅니다. 수많은 전설과 역사와 문화를 품고 달려온 태화강 백리길에는 아득한 신석기시대의 삶을 품고 있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과 둘째왕자 김덕지의 비극적 삶이 흐르는 범서에서 상북면 덕현리에서 동진한 물줄기와 합류합니다.

태화강은 베리꽃의 슬픈 애화와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최재우 선생의 유해지가 있는 입화산에서 발원한 유곡천 물줄기를 품고 태화루 앞 굽이치는 용금소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처절한 전쟁과 울산의병들의 충의 정신을 품은 도산성으로 흘러갑니다.

천주교 병인박해 때 언양 살티와 죽림굴에서 체포되어 가혹한 고초를 겪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병영 장대벌에서 태화강 백리길은 처용 설화를 머금은 동해바다로 떠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라 선덕여왕 시대에 자장율사가 세웠다는 태화사(太和寺)로 인해 태화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물의 길은 자연의 길이기 그 세월의 깊이를 기능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인류 문명사를 논하지 않더라도 강은 우리네 삶과 문명의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길은 인간의 길이며 삶의 길입니다. 태화강 백리길 그 아련한 역사와 설화를 뮤지컬로 제작했습니다.

‘태화강백리길 로드시어터’ 공연은 태화강이 품고 흘렀던 역사와 설화를 배경으로 창작한 드라마입니다.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공연문법으로 기획 제작 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상처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표현처럼 ‘태화강백리길 로드시어터’ 공연은 태화강 백리길로 끝없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미술작품 프란체스코 하예즈, 산드로 보티첼리,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전원경 강연(진행)

연세대학교 졸업,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 예술비평 및 경영 전공 석사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문화콘텐츠산업 박사 학위 / 월간 '객석'과 '주간동아' 문화팀 기자
<예술, 역사를 만든다>,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등 집필
예술의 전당 인문아카데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교양학부 예술 역사,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의 중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5년째 진행 중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진행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2년째 진행 중



김주영 피아니스트

서울대 음대 기악과 피아노 전공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대학원 및 연주박사 과정 졸업
모스크바 프로코피예프 예술기념 국제 콩쿠르 1위없는 2위
파리 그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상명대 겸임교수 역임
저서 <클래식 수업>, <피아니스트 나무>, <김주영의 영클래식> 외 다수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독일시립극장 오페라 주역
국내 국립오페라단, 시립오페라단 외 여러 단체와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파르지팔>, <리골렛토>, <오텔로>, <탄호이저> 등에서 주역
현, 전문 연주가로 활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김지윤 바이올리니스트

예원학교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 이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발굴아카데미 강사,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단원,
디토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악장 겸 수석

강연개요

강 연 명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일 시 / 장소 2020. 5, 7, 9, 11월, 총 4회 / 소공연장

일자	5. 21(목)	7. 24(금)	9. 18(금)	11. 20(금)
시간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입 장 등 급 초등학생(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 봄



프란체스코 하예즈 키스

9.18.^{FRI} 세 번째 이야기 '사랑과 이별'

문화예술회관의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는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합쳐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미술작품 감상과 음악 연주를 직접 들으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강연이다.

세 번째 이야기로 예술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예정이다. 사랑, 결혼, 실연, 이별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영원한 영감의 샘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림, 조각, 가곡, 오페라 등 창작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사랑과 이별이 예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되짚어 본다. 프란체스코 하예즈, 산드로 보티첼리,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작품 설명과 더불어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쇼팽 등의 곡을 피아니스트 김주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진행자 전원경은 예술전문작가로 <예술, 역사를 만든다>, <영국 :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런던 미술관 산책> 등의 책을 썼으며, 현재 서울, 천안, 대전 등 활발한 강의와 라디오 등 출연하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만나는 그림 콘서트의 입장료는 전석 10,000원으로 유료회원 할인으로도 만날 수 있으며 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풍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보고 듣는 행위의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트리스탄과 이졸데



두 번째 강연 사진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展

Ⅲ부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올해의 작가 개인전」 참여 작가들의 기증 작품으로 「올해의 작가 개인전」을 I·II·III부 릴레이 형식으로 연중상설 전시하고 있다.

올해 2월 21일부터 시작된 I부, 6월 1일에 시작된 II부 전시에 이어 III부 전시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상설 전시장 문을 연다.

이번 전시는 2017·2018·2019년 참여한 작가 14명의 작품으로 구성하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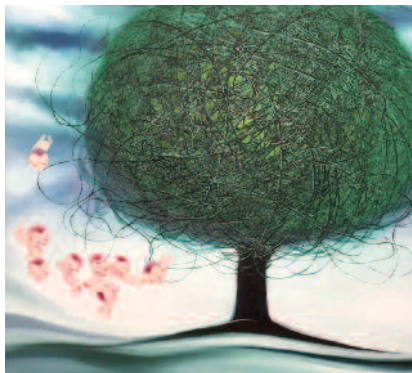
전시개요

전 시 명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III
기 간	2020. 9. 1.(화)~12. 9.(수) 100일간
장 소	상설전시장 갤러리 씬
전시내용	참여작가 기증작품 총 14점(미술12,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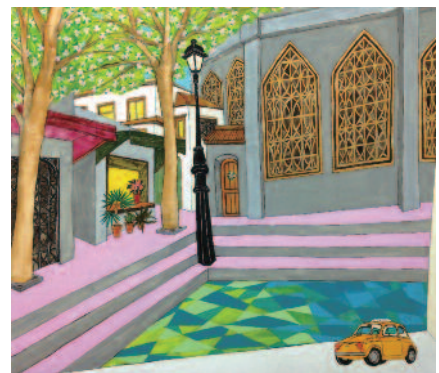
2017년 참여작가 김소리, 곽은지, 이정빈, 김용규, 천유리의 작품 5점, 2018년 참여작가 박병, 박소현, 오소영, 엄상용, 홍차 작품 5점, 2019년 참여작가 김아름, 안민환, 윤기동, 이아름의 작품 4점으로 총 14점을 만나볼 수 있다.



블라인드를 쳐주세요
〈이정빈작/2017년 7~8월의 작가〉



여름
〈홍 차작/2018년 11~12월의 작가〉



바라보다
〈이아름작/2019년 10~11월의 작가〉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 대작

뮤지컬 번개맨 검은 번개맨의 정체는?

2020.9.5 - 9.6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7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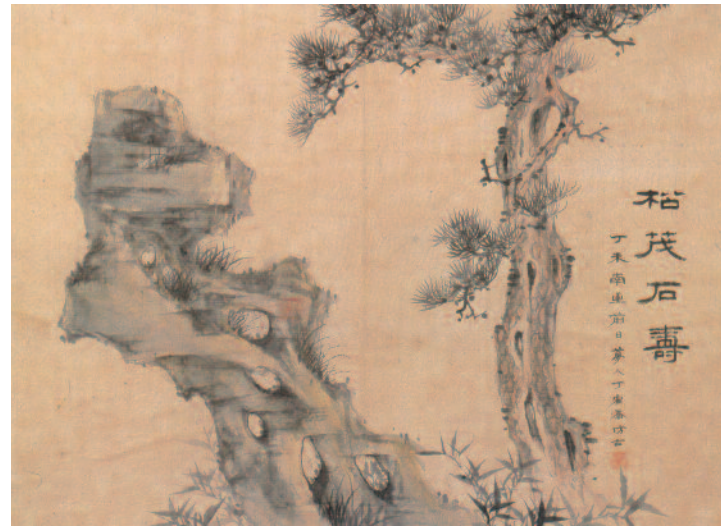
환상적인 괴석그림, 몽인 정학교

꿈꾸는 사람, 몽인

돌을 사랑하는 애석(愛石)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역사가 오래되었다.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서재에 들어 놓는 청공물(淸供物), 청완품(淸玩品)이며, 사랑채 마당이나 주택 꾸밈에 크고 작은 바윗돌이 조경석으로 빠지지 않았다. 규모가 큰 정원에는 석가산(石假山)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돌을 쌓아 올려 인공으로 작은 산을 만든 것이다. 감상용 자연석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석(壽石)으로, 중국에서는 기석(奇石), 공석(供石), 청공석(淸供石)으로, 일본에서는 수석(水石)으로 부른다. 애석의 긴 역사만큼 멋진 돌을 부르는 이름이 이석(異石), 진석(珍石), 수석(秀石), 미석(美石), 명석(名石), 완석(玩石), 고석(古石), 노석(老石) 등으로 많다.

그런데 중국 북송의 서예가이자 화가인 미불은 돌 중에서도 모양이 괴상하게 생긴 돌을 유별나게 좋아해 괴석(怪石)을 애호하는 취향의 원조가 되었다. 미불은 기암괴석을 보면 의관을 갖추고 돌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해서 고사인물화인 ‘미불배석도(米芾拜石圖)’의 주인공이 되었다.

괴석을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특한 심미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괴석그림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 최북, 강세황 등에 의해서였다. 지식층의 고상한 취미 생활이 문화현상을 이루는 19세기에 이르면 괴석화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때 기괴한 생김새의 괴석을 잘 그려 ‘정괴석’으로 불렸던 화가가 정학교(1832-1914)이다.



정학교, <송무석수> 1907년(76세), 비단에 담채, 30×41.5cm, 개인 소장

1907년 정학교의 76세 때 작품인 <송무석수(松茂石壽)>는 괴석과 소나무를 나란히 함께 그렸다. 제목이 “소나무처럼 무성하게, 바위처럼 오래오래”라는 뜻이어서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도(祝壽圖)임을 알 수 있다. 소나무와 돌은 모두 십장생(十長生)이다. 괴석은 소나무만큼 키가 크고 소나무보다 더 우람하다. 동그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고 돌 틈 사이사이에 난초가 자라고 있다. 아래쪽에 어린 신죽(新竹)을 그려 화면에 생기를 주면서 안정감 있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와 괴석을 남녀가 마주 보듯 한 쌍으로 그렸는데 괴석에 ‘조화로울 화(和)’의 옛글자인 ‘화(𩇛)’자를 새긴 인장을 찍어 놓았다.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조화로워야 장수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다. 제목 옆에 작은 글씨의 예서로 “정미(丁未) 남지전일(南至前日) 몽인(夢人) 정학교(丁鶴喬) 방고(仿古)”로 쓰고 <정학교인>을 찍었다. 정학교는 화가였을 뿐 아니라 전서, 예서, 초서 등을 잘 쓴 서예가이며 전각을 잘 했던 전각가였다.

몽인(夢人)은 정학교가 가장 많이 쓴 호이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몽인을 몽중인(夢中人), 몽중몽(夢中夢), 몽우몽(夢又夢), 몽중몽인(夢中夢人) 등으로 교묘하게 '몽'자를 중첩하며 사용했다. 몽(夢)은 인생의 유한함, 무상함을 철학적으로 설파한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에서 나왔을 것이다. 정학교의 당호가 장춘관(長春館)인 것을 보면 삶이란 한바탕 봄꿈인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정학교의 원래 한자는 학교(學敎)인데 동음이자(同音異字)를 활용해 발음은 같지만 한자는 다른 학교(學喬, 鶴喬, 雀喬)로도 쓰고 인장으로도 새겼다. 학(鶴)은 학(鶴)의 예서 글자 형으로

만년의 작품에 학교(雀喬)로 서명한 예가 많다. 정학교는 자 화경(化景)을 호로 활용하기도 하며 자주 사용했는데 발음이 같은 화경(化境, 化慶, 化徑, 花鏡, 華逕, 華徑) 등으로도 써서 역시 이름처럼 동음이자를 활용했다. 발음은 하나지만 글자는 여러 개인 이름과 자를 통해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을 문자 유희로 보여 주었다.

정학교의 이런 지적 유희는 바로 앞 시대의 대가인 김정희, 조희룡 등이 수 백 개 또는 수 십 개의 호를 상황에 맞추어 지어 쓰며 호 짓기를 현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과 같은 맥락이다. 정학교는 작품에 따라 지어지는 그때그때의 호가 드러내는 예술적 자아의 유연함, 변화로움, 다양함이라는 선배들의 작호(作號)에 담긴 의미를 계승하면서 이를 가볍게 문자 놀이로 변주하며 호와 이름, 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의 그림, 글씨, 전각이 주는 기묘한 환상성이라고 할 개성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송무석수〉에서 괴석은 장수의 상징으로 그려졌지만 원래 문인들의 애석은 장수라는 구체적인 현실 욕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불변 부동한 자연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인 돌에 투사한 것으로서 여기에 독특한 심미의식이 더해진 것이었다. 북송 때 화론인 『임천고치(林泉高致)』(1117년에 “석자(石者) 천지지(天地之) 골아(骨也)”, 곧 “돌은 천지의 뼈다”라는 말이 나온다. 나무는 춘하 추동에 따라 모습이 바뀌고, 산의 흙도 비바람에 쌓였다 흩어졌다 하지만, 바위는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불변부동 한 돌의 본성을 바탕으로 보통사람이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괴상한 형상에서 미적인 것을 발견해 추미(醜美)를 미(美)로 인식하는



정학교, <괴석난죽>
1911년(80세), 비단에 담채,
145.2×45.2cm 호림박물관 소장

차별적 심미의식을 드러낸 것이 괴석이다. 공감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즐기기도 어려운 취향이다. 그런데 괴석 애호가 표상하는 차별적 취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여겨지면서 괴석은 천연의 조각품인 돌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애석으로 확장되고 수석(壽石)을 수집하는 취미로 자리 잡게 된다. 〈송무석수〉는 괴석의 멋짐에 장수 기원의 실익이 더해진 축수의 돌 그림이다. 호에 넣는 글자로 '돌 석(石)'자가 많은 것도 불변부동한 돌의 미덕을 닮고 싶고, 또 석수만년(石壽萬年)의 돌처럼 세상에서의 삶을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그려진 정학교의 괴석화는 사군자처럼 실재하는 대상을 어떤 개념을 우의한 상징물로 그리는 문인화로 출발했던 원래의 괴석화와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지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필묵 자체의 표현성을 중시하는 서예적 필획미의 '문인화'가 아니라 섬세하고 정밀한 묘사적 필치와 은은한 채색을 구사한 감각적 조형미의 '회화'라는 점이고, 둘째는 괴석과 소나무를 함께 그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현세적인 기복의 길상화라는 점이다. 〈송무석수〉는 송석난죽(松石蘭竹)이라는 지식층 그림의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서예성과 상징성이 아니라 회화성과 길상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띠는 그림이다.

꿈속의 사람, 몽중인

괴석이 불변부동한 자연의 원리를 현현하는 상징물로서 책상 위로 서재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분란(盆蘭)은 군자(君子)를 상징하는 난초를 심산유곡에서 서재로 옮겨온 것이다. 사군자는 매난국죽 4가지 식물의 생태를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의 속성으로 의인화하며 군자와 동일시한 것이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의 설리개화(雪裏開花), 찬 서리 내리는 가을 한 해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국화의 오상고절(傲霜孤節),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의 녹죽의의(綠竹猗猗)와 함께 난초는 빈 골짜기에서도 홀로 그윽한 향기를 퍼트리는 공곡유향(空谷幽香)으로 군자를 상징한다. 분란은 일상 속에서 군자인 난초를 가꾸며 수신의 계기로 삼았던 애호물이자 동반자이다.

〈괴석난죽〉에서 괴석은 화면 아래쪽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돌출하는 기세로 그려진데 비해 괴석 주변의 댓잎과 난잎은 양쪽맞다고



정학교, <근목> 1911년(80세), 종이에 수묵, 29×44.4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할 정도로 아기자기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사군자와 돌을 함께 그릴 때 돌은 배경이거나 보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정학교는 돌을 주인공으로 삼고 사군자를 조연에 불과하게 그렸다. 괴석 위로 우뚝 솟은 불합리해 보이는 위치와 크기의 분란도 화분의 비중이 난초보다 커서 이전의 회화적 관습과 비교해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군자인 난초나 대나무보다 값비싼 골동품인 화분이, 장수를 상징하는 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일까? 그리고 보면 한갓 식물일 뿐인 매난국죽에 군자의 이념을 과도하게 부여해 다른 식물들과의 차등을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 그것은 곧 군자를 이상화하며 도덕사회 추구라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의 화제와 1911년 6월 그려졌음을 밝혀 놓은 낙관은 이렇다.

계정증재수십총(磬亭曾裁數十叢)
시냇가 정자에 수 십 포기 심었더니
자경녹엽영춘풍(紫莖綠葉領春風)
자줏빛 줄기 푸른 잎이 봄바람을 거느리는구나
연래소애과삼척(年來蕭艾過三尺)
몇 년 사이 쑥이 석 자 넘게 자라
백수간도사몽중(白首間道事夢中)
노년에 그림을 보니 꿈 속 같구나

신해(辛亥) 유하(流夏) 몽중인(夢中人) 정학교(丁雀喬)

꿈꾸는 사람인 몽인을 꿈속의 사람, 몽중인으로 변주해 사용했다. 화제는 명나라 때 문인 종록의 시 <제란(題蘭)>인데 마지막 두 글자가 '몽중'이어서 이 시를 인용한 것 같다. 정학교의 서명 '몽중인'과 잘 어울린다.

꿈속의 꿈, 몽중몽

'몽중몽(夢中夢)'은 정학교의 전서 <근목(槿墨)> 첫머리에 찍힌 인장의 인문(印文)이다. 그 아래 <팔십광음일몽중(八十光陰一夢中)>이 있고 '팔십 몽인 정학교'로 서명한 아래에 <정학교(丁雀喬)> 등 세 방의 인장을 찍었다. <근목>은 위창 오세창(1864-1953)이 우리나라 역대 서예가, 학자, 정치가 등 천 여 명의 친필을 수집한 방대한 글씨 모음집 『근역서휘(槿域書彙)』 첫머리의 제목 글씨이다. '근역서휘'의 원래 이름이 '근목'이었고 오세창이 정학교에게 제자(題字)를 부탁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 정학교가 80세 때의 일로 당시 오세창은 이 서첩의 앞부분을 완성했다. 나라를 뺏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근(槿)'자를 붙여 '무궁화가 피는 우리나라 글씨'라고 한 것이다.

독립 운동가이자 서예가, 전각가, 수집가인 오세창은 아버지 오경석의 가풍을 이어받아 여기저기 흠어져 흠대받던 우리나라 고서화를 수집해 체계를 갖추어 첩으로 만듬으로서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한 공로자이다. 정학교의 <근목> 글씨가 들어 있는 『근역서휘』는 35첩으로 완성된 후 1936년 박영철(1879-1939)에게 양도되었다가 경성제국대학에 기증되어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 되었다.

현재 '근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글씨 모음집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된 『근목』이다. 왜냐하면 오세창이 『근역서휘』를 양도한 후 다시 글씨 모음집을 만들면서 '근목'으로 이름붙이고 자신이 직접 제자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학교의 1911년 <근목>보다 오세창의 1943년 <근목> 글씨가 더 널리 알려졌다. 둘 다 전서이다. 『근목』 또한 『근역서휘』만큼 방대한 정몽주에서부터 오세창의 제자뿐인 관재 이도영에 이르기까지 천 여 명의 소품류 필적을 34첩으로 모은 것이다. 『근목』은 오세창이 작고한 후 1964년 유족에 의해 성균관대학교에 양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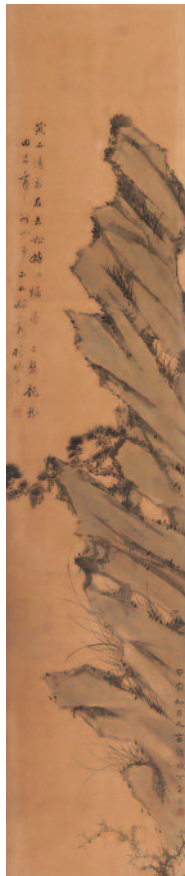
오세창이 우리나라 서예사의 보고인 최초의 글씨모음집 제자를 정학교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은 당시 정학교가 최고의 서예가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세창에게 정학교는 서예가, 전각가로서 32살 위의 선배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 역매 오경석과 교유했던 부친의 친구였다. '근목'이라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이름 또한 정학교가 지었을 것 같다.

정학교는 경상도 문경, 충청도 청안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다 27세 때인 1858년 생원시에 합격 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것 같다. 시서화는 물론 전각 까지 잘 했던 정학교는 하급 무관으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중인 명사들의 시모임인 육교시사, 벽오사 등에 참여하며 이상적, 김석준, 오경석 등의 역관을 비롯해 유재소, 전기, 이한철, 유숙, 안건영, 장승업 등 중인 화가들과 교류했다. 장승업의 작품에 대신 화제를 남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겸인이었던 유재소를 통해 운현궁을 드나들며 화계사 대웅전 편액(1870년), 배재학당 편액(1886년) 등을 썼고 광화문 편액도 썼다고 한다.

〈근목〉은 먹물이 적은 마른 붓의 깔깔한 갈필 필획을 조형의 주요 요소로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획을 시작하는 부분 외의 대부분의 필획을 비백(飛白)으로 구사해 투명한 듯, 연약한 듯 한 획의 성질은 유례가 없는 정학교 고유의 필치이다. 보통의 전서와 달리 짜임이 느슨하면서도 모든 획이 정지해 있지 않아 잔잔한 운동감이 느껴지는 것도 특징이다. 누구도 따라 하기 힘든 개성적인 글씨이다. 김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역관 김석준은 정학교를 평해 “반평생 글씨 명성 항상 시기가 많았으니, 기러기와 학이 노니는 듯 기이한 재주를 다했네.”라고 했다. 정학교는 당시 유행했던 김정희 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개성을 발휘한 서예가이다.

나주 사람, 금성

〈괴석〉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10폭 병풍 중 마지막 폭이다. 10폭 모두 괴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난국죽, 소나무, 영지 등을 곁들여 그렸는데, 세로가 가로 4배가 넘는 좁고 긴 화폭을 각각 다른 모습의 괴석하게 생긴 돌들로 채워 10폭을 함께 보면 더욱 환상적이다. 〈괴석〉은 넓적한 바위를 층층이 높게 쌓은 듯한 형상의 괴석을 화면의 오른쪽 변에 붙여 그렸다. 겹쳐진 돌 사이에는 구멍도 뚫려 있고 난초도 군데군데 자란다. 제일 아래에 매화나무가 있고 화면 중간쯤에 괴석 뒤에서 뻗죽이 내민 소나무 가지가 보인다. 소나무, 매화나무와 비교해 보면 이 괴석이 엄청나게 큰 돌임을 알 수 있다.



정학교, 〈괴석〉
10폭 병풍 중, 1914년(83세),
비단에 담채, 196×4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렇게 화면 왼쪽을 비워둔 구도를 취한 것은 마지막 폭이어서 화제와 낙관을 위한 자리 때문일 텐데 정작 낙관은 오른쪽 아래의 바위 위에 했다. 화제시와 낙관을 두 군데로 나누어 쓴 것도 이색적이다. 왼쪽 여백의 화제는 ‘송석(松石)’을 읊은 명나라 문인 이일화의 시이고 그 아래 인장은 〈비왈능지(非曰能之)〉이다.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다.

날짜와 서명은 “갑인(甲寅) 화월지길(和月之吉) 금성(錦城) 정학교(丁槐喬)”이다. 정학교가 83세로 작고한 해인 1914년 3월의 그림이다. 이름 앞에 호나 자대신에 ‘금성’으로 본관을 썼다. 금성은 나주의 옛 지명으로 정학교는 나주 정씨이다. 정학교가 금성이라는 본관으로 서명한 작품으로 1863년 32세 때의 〈묵매〉(수원 박물관 소장)가 있는데 알려진 가장 이른 작품이다. 30대 초에 썼으나 이후 보이지 않던 본관이 생애 마지막 해의 이 병풍 작품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몽인은 정학교가 40대부터 꾸준히 사용한 호이다. 30대에 사용한 호는 향수(香壽)였다. 83세까지 장수하며 만년에도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으니 정학교는 젊은 시절의 호 향수(香壽)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향수는 그의 가족들과 연관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정학수(1884-1924?)도 서예와 산수화를 잘 했는데 호를 수산(壽山)이라고 해 형과 ‘수’를 같이 썼다.

정학교의 셋째 아들인 서예가 정대유(1852-1927)는 아버지의 호 향수에서 ‘향’자를 따와서 ‘나도 또 향(香)’인 우향(又香)이라고 했다. 호를 지을 때 아버지의 호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 ‘우(又)’나 ‘소(小)’를 붙이기도 했다. 부자지간에 한 글자를 공유한 예로 하정(荷汀)과 우하(又荷), 소남(小南)과 우남(又南), 일송(一松)과 우송(又松), 눌인(訥人)과 소눌(小訥), 자하(紫霞)와 소하(小霞), 하정(霞亭)과 소하(小霞), 석연(石然)과 소석(小石), 금남(錦南)과 소남(小南) 등이 있다.

괴석화는 정학교 이후 전공으로 하는 화가는 없었으나 사군자 화가들은 괴석을 즐겨 그렸고, 대부분 정학교의 괴석화를 본받았다. 그 중에서 석정(石亭) 이정직(1841-1910), 석촌(石村) 윤용구(1853-1939), 석재(石齋) 서병오(1862-1936) 등이 정학교풍 괴석을 즐겨 그렸다.

커뮤니티 아트 6

미학보다는 공동체의 창의성을 위한 예술

이강민

울산미술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개념미술(conceptual art)은 작품에 담긴 개념(관념)이 전통적인 미학, 즉 물질적이며 기술적인 작품보다 앞서는 미술을 말한다. 개념미술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 이후 예술은 철학이 되었으며, 예술계는 자연스럽게 물질중심의 '회화와 조각'에 대한 전복적 시도들이 우후죽순마냥 시도된다.(그림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임스 멀린(James Merlin)은 '20세기 예술 형식의 역사를 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로 양분할 수 있다'고 했다.

반형식주의 미학의 반란

1960년대 이후 예술계의 주요 화두는 권력화 된 제도권 미술, 다시 말해 모더니즘의 극단적 형식주의와 화이트 큐브 미술관 중심성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당대 미술은 비물질이나 포스트 스튜디오(post studio)를 추구하는 등 형식과 제도적 측면에서 모더니즘의 위계를 전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개념미술 이후 예술은 예술의 형식, 즉 예술의 감성적 존재방식인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고 이와 연관되어 예술가들은 자기의 활동 장소와 역할에 고민을 발전시킨다.

대표적으로 옵아트(optical art)는 모더니즘이 강조한 전통적인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 빛과 색, 형태의 조합을 통해 기존의 미술의 역할이었던 사상이나 정서의 표현과는 무관한 착시와 광학적 색채의 변화 등, 입체적이며 과학적인 예술을 추구하였다.(그림2)

그리고 수많은 교육된 미술가들은 미술관을 벗어나 파빌리온(pavilion)과 같은 설치 미술과 대지 미술(land art)을 탄생시킨다. 또한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작품 전체 혹은 작품의 일부분에 움직임을 결합함으로써, 과거 건축이나 미술관 좌대 위에 고정된 조각 작품 대신에 살아 있는 조각을 주조했다. 여기에 1960년대 TV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비디오 아트(video art)나 그 밖의 사진, 영화, 방송 등의 매체로 확장된 미디어 아트(media art)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예술의 존재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림이나 음악, 연극과 같은 경우는 캔버스나 악기, 그리고 신체라는 물질적인 매체를 통해 의미를 전달했고, 이때 매체는 예술작품의 존재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전자파, 즉 비물질적인 매체를 통해 문자, 이미지, 소리를 통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팝 아트가 그랬던 것처럼 전통적인 미술 형식을 붕괴시켰다.

특히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는 형식주의 미술에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아트는 반형식을 넘어 무형식의 형식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퍼포먼스 아트는 작품의 물질적 존재성이 예술을 자본주의 상품화로 이끈다는 비판아래, 작품의 한시적 존재성(일회성)을 위해 미술에 연극적 계기를 가미하면서 탄생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퍼포먼스 아트는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반발하여 등장한다.(2019. 12월호)이브 클라인의 <살아 있는 붓>, 피에로 만초니의 <살아 있는 조각>, 앨런 캐프로의 <해프닝>, 그리고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이 활동했던 <플럭서스 운동> 등과 같은 반형식주의 미술들을 지류로 한 퍼포먼스 아트는 이후



그림1) 마르셀 뒤샹의 〈샘〉, (Duchamp_Fontaine), 1917.
개념예술의 시작은 마르셀 뒤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예술이 예술가에 의해 창조되는 객체(object)로서 사물로 인식되었다. 뒤샹은 이러한 전통적인 미술 개념에 반발하여 이미 만들어진 사물(ready made)도 예술가의 의도(개념)가 있다면 곧 예술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가 이러한 현대의 미술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뒤샹 이후의 “모든 미술은 개념적이다”(1969)라는 말로 개념미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6/Duchamp_Fontaine.jpg/220px-Duchamp_Fontain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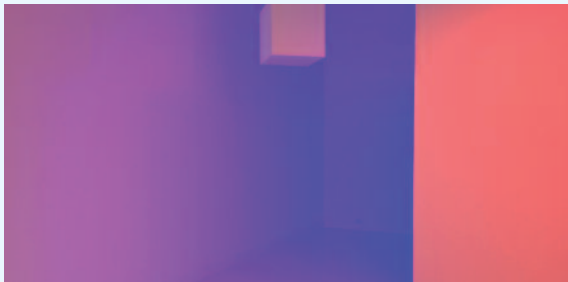


그림2) 크루즈 디에즈 〈색 가득 공간〉 2020. 8. 2. 울산문화예술회관 프린터기의 광학적 특성으로부터 발견한 색채의 원리를 빛의 원리와 연계하여, 빛과 색채, 그리고 착시현상을 통해 자신만의 화려하고 몽환적인 색채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5주년 기념으로 디에즈의 작품을 전시했다.



그림3) Craigmillar Festival Society Festival 1970 <Craigmillar Castle 의 Maypole>, 2005.9.8, 촬영, 세계 공동체 예술의 날. 영국은 크레이그밀라와 같은 공동체 예술 자선단체가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처정부가 급진적인 공동체 예술 단체에

대한 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미끼로 자선단체(비영리부문)로 가입시켰던 사실과 연관된다.

출처 ▶ https://live.staticflickr.com/80/237614840_2e32a578c5.jpg



그림4) 〈걸리버의 실종〉 스코틀랜드 크레이그밀라에 있는 공동체 놀이기구(gentle giant sculpture). 작가와 지역 공동체가 협력으로 만든 설치물. craigmillar festival society(CFS)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어왔던 걸리버 조각의 철거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상단출처 ▶ https://i2-prod.edinburghlive.co.uk/incoming/article18148121.ece/ALTERNATES/s615/5625113905_c22bbb25be_o.jpg
하단출처 ▶ <https://i1.wp.com/www.weirdgoogleearth.com/wp-content/uploads/2013/02/gullivers-disappearance-scotland-external-150x150.jpg?resize=150%2C150>



그림5) Easterhouse의 자유, 미첼 도서관, 글래스고 컬렉션, 게시판 사진, 작은 세라믹 타일로 구성된 자유를 나타내는 벽화, 그것은 Easterhouse의 Lochend Road에 설치된 12 개의 20 피트 섹션 중 하나, 이 벽화 프로젝트에는 3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최종 제품은 길이가 240 피트로 영국에서 가장 큰 수공 벽화이자 현존하는 커뮤니티 공공예술의 가장 좋은 사례로 간주된다. 2004년에 철거된다.

출처 ▶ https://www.theglasgowstory.com/images/TGSA05116_m.jpg

연극이나 공연예술 전반을 통합하면서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미술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20세기 60년대는 예술 형식과 예술 정의 측면에서 대격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미학보다는 공동체의 창의성을 위한 예술의 대두

한편, 1960년대 말에 대두한 커뮤니티 아트는 퍼포먼스 아트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

크레이그밀라 축제 위원회(Craigmillar Festival Committee, 이후 CFS로 개칭)는 1962년 에든버러 남동부에 있는 페퍼밀(Peffemill) 초등학교의 어머니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악 수업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3Rs” 수업 때문에 음악수업을 할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어머니 그룹은 지역의 인재를 끌어내고, 음악과 드라마, 예술이 망라된 주민축제(People's Festival)를 개최함으로써, 단조롭고 회색조의 환경을 컬러풀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바꾸었다.(그림3.4.5)

크레이그밀라 축제 협회(Craigmillar Festival Society, CFS)는 전문 배우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긴밀한 공동 작업을 통해 ‘커뮤니티 뮤지컬’ 제작자로 유명을 떨쳤고, 첫 번째 작품인 “The Time Machine”(1973)에서부터 매년 작품 창조와 공연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전문공연가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이피크 커뮤니티 아트(High Peak Community Art)의 프로젝트인 <Kick On and They All Limp>는 대도시인 뉴밀즈(New Mills)의 문제 해결에 대한 창조적 대응으로 개발되었다. 이 대도시 외곽 마을 청소년 클럽은 대부분의 주민들에 의해 ‘말썽꾸러기’로 여겨졌으며, 그런 만큼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이때 공장도시 노동자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서사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공동체 연극을 제작했다. 전문작업자들은 연극에 삽입될 곡을 작곡했고, 사람들은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외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이해를 강화했다.

하이피크 커뮤니티 아트는 또한 서커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의 기술과 재능을 연결시켰다. 이들은 에든버러에 있는 서커스계의 대부 레지 볼튼(Reg Bolton)을 초대해서 한 번의 여름 동안 영감을 주는 철학과 실천을 배웠다. 볼튼이 떠났을 때, 하이피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서커스를 만들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고, 자전거타기, 저글링, 광대기술 훈련을 도왔다.(그림6) 부모와 친구들은 의상을 만들고, 저글링을 위해 죽미를 만들었으며, 포스터를 찍었다. 그리고 청소년 서커스단은 마을과 읍을 돌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유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일례가 된다.

크레이그밀라 축제의 특징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자원을 연결하였고, 집중적인 정치적 행동 - 문화와 풍자적 비판을 결합한 ‘커뮤니티 뮤지컬’이나 역사작품 제작 - 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확대하고, 정치인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하이피크 커뮤니티 아트 역시 지역의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서커스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의 기술과 재능을 연결시킴으로써,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한다. 이처럼 커뮤니티 아트는 미학보다는 공동체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에 더 관심이 있다.

새로운 예술가의 등장

그렇다면 공동체의 창조적 실천은 어떻게 예술의 범주에 자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술을 자아실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보다 더 창의적이길 바라는 공동체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동체 예술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커뮤니티와의 관계이다.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창조력을 더 잘 알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감수성을 넓히고 심화시키기를 희망한다. 그 존재가 풍부해지기를 희망한다. 1)

1)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1974, Community Arts, The Report of the Community Arts Working Party (Arts Council: London).

과정으로서 예술이라는 점에서 퍼포먼스 아트와 커뮤니티 아트는 유사한 예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퍼포먼스 아트가 너무나 난해하였고, 대중적이지 못했으며, 심지어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미학 안의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1960년대 퍼포먼스 아트는 그 자신이 거부했던 난해한 추상미술과 같이 중산층을 기쁘게 하는 엘리트주의 예술로 되돌아갔다. 이에 비해 커뮤니티 예술가는 전통적인 예술에 미학적 대체를 위한 퍼포먼스 예술가와 달리, 자신들의 역할을 박탈된 공동체의 창조적 실천과 통합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천은 흑인예술(Black arts)이나 장애예술(disability arts), 지역의 민속예술(folk arts)과 만나 새로운 음악(Ska, Reggae, Funk Music)과 미술(벽화, 자이언트 인형)을 재창조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축하하는 축제와 퍼레이드를 만들었다. 워크숍(workshop)은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경험과 기술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의성을 생산하는, 교사와 가르침의 구별이 깨지는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정치적인 캠페인을 위한 커뮤니티 뮤지컬, 커뮤니티 연극과 커뮤니티 댄스, 커뮤니티 합창과 같은 자발성에 기초한 예술 활동을 생산했으며, 공동체의 현실을 알려내고 내부를 결속시켜주는 포스터, 전단, 신문, 사진, 잡지 제작을 위해 커뮤니티 인쇄소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의 축하와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예술적 실천을 공동체 스스로가 창조하였다.

1970년대 영국예술위원회는 폭증하는 실험적 예술지원을 검토했는데, 이때 퍼포먼스 아트와 달리, 커뮤니티 아트는 자신의 가치를 더 증명해야 했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아트가 공동체의 창작이며, 미학적 질이 떨어졌고, 심지어 정치적 맥락의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커뮤니티 아트는 공공미술과 같은 도시정책 용어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계 안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이 이미 자원이자 참여 장치로 수용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에서 행위 혹은 수행과 같은 과정 중심의 예술이나 미디어 혹은 기록물 같은 아카이브와 필름까지 모두 예술작품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7)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작가와 공동체(보통사람들)의 공동창작이 과연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만 남는다. 비숍(C. Bishop)에 따르면 퍼포먼스 아트와 커뮤니티 아트의



그림6) 아일랜드 자선단체 Galway Community Circus의 활동장면,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를 비롯한 거리예술의 바탕에는 이처럼 광범한 공동체 예술 역사가 숨어있다. 출처▶https://www.galwaycommunitycircus.com/content/banners/governance_banne.jpg



그림7) <도큐멘타(documenta)>는 독일 카셀에서 1955년부터 5년마다 열리는 현대 미술 전시회를 말한다. 도큐멘타는 나치즘 시기 현대미술을 퇴폐미술로 낙인찍은 것에 대한 반성과 미술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소원하는 의미로 설립되었다. 사진은 도큐멘타가 열리는 메인 전시관 <프레데리치아눔 (Fridericianum)>이다. 이곳에서 요셉 보이스가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조직'이란 주제로 100일 동안 관객들과 민주주의와 예술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전시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저자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사에서 예술 형식과 예술 정의가 시대마다 변화해왔지만, 그 변화에 따라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예술 가치 역시 변화해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술가, 즉 작품의 저자성이다. 뒤샹의 '샘'도 조영남의 '화투'와 같은 대리 작품이나 기성품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술이게 한 예술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동시대 예술은 초기 커뮤니티 예술가가 그랬듯이, 예술가와 공동체를 양 끝단으로 삼고 그 사이를 오가는 공동체의 저자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인할 것인가에 따라 예술의 유형과 가치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동시대 예술의 공동저자성은 예술의 윤리문제도 제기된다.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6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16-1 코로나 시대의 카르멘

1.

Je l'aime, je l'aime
난 그를 사랑해! 그를 사랑해
et devant la mort même
또한 나의 죽음앞에서도
Je répèterai que je l'aime
난 반복적으로 말할거야, 그를 사랑한다고...

카르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명예와 직업 등 모든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온 돈 호세앞에서, 또한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절규하며 간청하는 돈 호세앞에서, 또한 그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앞에서도... 당당하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 고 절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카르멘 자기 자신의 성취? 자아구현?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대상은 모든 여인의 우상인 투우사 에스카미요... 오늘날 같으면 스타 호나우두 쯤 될까?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적인 남자를 버리고 에스카미요를 열망하는 수 많은 여인들의 대열에 가담하고 싶은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않는 돈 호세의 숭고한 사랑보다는 ‘스타’ 에스카미요의 간택을 받아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세속의 영광을 쟁취하고 싶은것인가? 호나우두를 거쳐간 수 많은 미녀들처럼...

2.

Jamais femme avant toi, aussi profondément n'avait troublé mon l'âme.
당신 전의 어떠한 여자도 내 영혼을 이토록 깊이 혼란스럽게 하지 못했다...

불쌍한 돈 호세...자신을 구원하기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청순한 아가씨 미카엘라의 사랑과, 아들이 돌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고향의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까지 카르멘을 따라서 도적떼 무리속으로 들어갔어아만하는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편으로는 그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한 여자에게, 한 대상에게 그렇게 미칠 수 있다니 말이다.

3.

그리고 오페라 카르멘은 또 다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만일 돈 호세가 어머니와 미카엘라의 말을 잘 듣는 모범생 이었다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선조들은 1875년부터 지금까지 150여년 동안 이 똑같은 스토리의 오페라를 보러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겠냐고...

4.

오페라 카르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종을 울린다. 기계문명에 종속되어가는 현대인들이여...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이 세대의 무지한 이들이여.

아이돌, K팝을 필두로 한 자극적인 기계음으로 무장한 댄스 음악.. 또한 트롯트, 유령(팬텀)싱어 등의 이름도 생소한 '비대면, 온라인 뮤지션'들만을 양산하는 이 세대의 무지한 이들이여.

더 나아가 디지털 공연, 무관중 공연 등의 이름으로 클래식 공연을 억압하려 획책하는 이 세대의 무지한 이들이여.

더 나아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초밀착 상태에서 비밀을 튀기면서 먹고 마셔대고, 떠들어대는 술집과 음식점과 골프장은 경제란 이름으로 그대로 방치하면서 한 나라의 미래의 근간이 되는 '인간을 선하게 교육시키는 클래식 공연장'은 다 말살하는 이 세대의 무지한 이들이여.

조르주 비제의 2시간 짜리 단 하나의 오페라 카르멘이 인간을 얼마나 더 인간답게, 인간을 얼마나 더 복잡하고도 섬세하며 고귀한 감정적, 이성적 존재로 승화시켰는지 무지한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그 시대의 엄격한 '바그너주의자'들조차, 신을 부정하던 '니체'등을 포함한 모든 유럽의 지성들이 이 작품의 간결하고도 세심한 아름다움에 얼마나 많은 찬사를 쏟아내었던가?

카르멘이 죽음앞에서도 에스카미요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돈 호세는 여자를 죽여서라도 자신에게서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절규하는것 처럼... 순수 예술인들은 이럴때일수록 더욱 처절하게 자기분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야한다.

이것은 카르멘과 돈 호세의 사랑과 갈등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영적싸움이기예 물질과 탐욕의 기계문명으로 무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 예술인들은 결코 이 세대의 무지한 이들에게 굴복할 수 없음을 다짐해야 한다.

5.

지난 7월 을숙도 카르멘 공연 후 커튼콜을 하려고 무대뒤에 기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오르고 떨리는지... 지난 20여 년간 늘 해왔고 당연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유료 관중공연을 5개월만에 하고 나니...아, "이 당연함을 항상 누릴수 있고, 또 늘 가까이 있는게 아니구나" 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더우기 오케스트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열화같은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의...저 멀리있는 얼굴들은 전원 마스크로 가려져있어 참으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은하철도 999'의 기관장 같은 400 여개의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들... 하기가나 또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은가?

언제 코로나가 끝나려나...

6.

하지만 단장님 이하 모든 스텝분들,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가수분들, 완벽에 가까웠던 합창과 어린이합창, 러시아 무용단원들, 적은 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해 주는 바람에 기대보다도 훨씬 우수한 음악을 생산해 준 오케스트라... 까지 또한 무대, 조명 의상 분장, 자막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모여 오페라 한 편이 올라갔다.

이 귀하디 귀한 자산들이 이 세대의 무지한 시스템과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홀대받거나 무시되지 않으려면 우리 예술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철저히, 아니 처절히 매진해야 함을 일깨워 준 Corona 시대의 카르멘 공연이었던 것이다.

인생은 그런것인가 보다.

16-2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

1.

Na corro (run)- 나 달려?,... Na coro (choir) -나 합창?...
김해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출발, 8시 59분 기차를 잡아타려고
1시간 남짓 눈썹이 사라질 정도로 구포역으로 달려왔더니
웬걸, 10분이 남은게 아닌가... 아, 괜히 Corro나?

역 앞 아무 김밥집에서 한 줄 싸 달라고 하는 그 순간, 포착된
옆에 동그랗게 암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순대를 보고는
알 수 없는 식탐이 웅숭음치며 급기야 잘라 달라고 외치고
말았다. 그 덕분에 날아간 3분...

기차 놓칠까 싶어 '허경영식 축지법'으로 한 걸음에 세 계단을
날아오르는 신공을 부려 기차에 겨우 올라타고는 혁혁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Coro na오는지도 모르게 미지근한 순대를
급하게 쭈셔넣으니...내가 왜 이려고 살지?...내가 왜 이려고
있지?...라는 자괴감이 심하게 밀려왔다.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일까?... 어릴때 학교앞에서나
버스터미널에서 먹던 그 순수한 순대맛이 아니네" 하면서
순진하고도 이상한 생각으로 빠져 들어갔다.

2.

인생은 그런것 인가 보다.
필자의 첫번째 창작오페라 '운수좋은날'의 2막 2장에서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미를 극진히 간호하는 중학교 3학년 딸
'숙희'가 등장해 다음과 같은 가사를 가진 아리아를 부른다.

아리아- 대봉초등학교와 엄마
"엄마, 왜 여기 누워있어?
엄마, 나를 대봉초등학교에 데려다줘요.
엄마. 나 이제 여덟살이잖아,
학교에 가야 하잖아,
어서 일어나 학교에 날 데려다줘요.
엄마, 엄마. 엄마!
어서 일어나 그때처럼 뛰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요.."

28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필자의
모친은 필자가 귀국한 해인 2006년, 가벼운 뇌경색을 맞으
셨다. 파티마병원 중환자실 보호자 간이침대에서 며칠을
보내던 필자의 머릿속에 갑자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구
대봉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를 갓 개업한 32살의 젊은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학교로 뛰어가던 그 표정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열심히 달렸지만...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무척 힘겨워도 하셨다. 그런 와중에 만난 교통
사고...

3.

인생은 그런것인가 보다... 필자 역시 귀국 후 4년여 살던
고향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올라간 뒤 가끔씩은 외국을 포함해
전국을 11년째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필자 역시 세상을 열심히 달리지만... 뜻대로 되지않는
세상에 무척 힘겹기도 하다. 그래도 필자는 이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것은 여러 여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참! 그 수 많은 여인들 중, Na로 끝나는 이름의 미인들도
적지 않은것 같다.

체를리나 (돈 조반니)
돈나안나 (돈 조반니)
파미나 (마술피리)
수잔나 (피가로의 결혼)
아디나 (사랑의 묘약)
코로나 (일루미나티)
노리나 (돈 빠스칼레)

4.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조리 대구 신천
변에 인접해 있었는데, 그걸 현진건의 운수좋은날에 대비시켜
패러디 한 오페라 '운수좋은날'은 2011년 국립오페라단 창작
공모전에서 당선되었고, 2013년 국립오페라단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공연 된 바 있는데, 이번엔
2020년 부산오페라워크 축제에 선정되어 올해 10월1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그 4번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막 대구 신천변, 2막 서울 동대문시장 이었던 무대 중,
그 1막이 부산의 '영도따리'로 옮겨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5.

아무튼 입으로 숨이 들어가는지 코로나 오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에게 김밥 한 줄, 순대
한 덩이라도 어찌 미쁘지 아니하랴?
이런 여인들을 다달이 만난다면.....

8월초엔 제주 서귀포에서 투란도트를 만나고,
8월 말엔 대구에서 아디나를 만나고,
9월 첫주엔 서울에서 파미나를 만나고,
10월 초엔 부산에서 아미를 만나고,
10월말엔 경북에서 다시 투란도트를 만나고...
연말에는 경남 김해에서 메시아를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며
만날것이다.

그리고...코로나도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 세르비아,
한국 등을 전전하며 매일 만나오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꿈, 희망, 전설 그리고 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하거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공연장 풍경도 마찬가지다. 영상을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고, 객석간 거리두기를 하며, QR코드를 활용한 방문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하철 개찰구같은 출입 시스템을 도입한 공연장도 등장했다.

비단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다. 공연장 방역은 대한민국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는 움직임도 글로벌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다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이다.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된 기사 속에는 K방역의 노하우를 서구 극장가에서도 따라야 한다는 ‘오페라의 유령’과 ‘캣츠’의 작곡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내한공연중인 ‘오페라의 유령’을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령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찬사까지 더해졌다. 그만큼 우리 공연계가 철저한 대비와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 반갑고 또 믿음직스럽다. 방심은 금물이니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긴장과 주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고 궁극적인 목표다.

브로드웨이 공연들이 막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현지인들에겐 꽤나 충격적인 상황이다. 9/11 테러나 2차 세계대전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공연장들은 말그대로 전대미문,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대부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공연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쇼는 계속돼야 한다(The shows must go on)’라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캐치프레이즈가 팬데믹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문화나 예술로 얻을 수 있던 공동체 의식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연은 막을 올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사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까지 뉴욕은 미국 사람들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많은 인종과 문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방문객과 이야기들로 일 년 내내 잠들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를 보면 뉴욕을 지칭해 ‘우주의 중심(center of the universe)’이라 노래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 누구나 그곳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된다.

브로드웨이는 바로 그런 뉴욕의 한 거리 이름이다.

말 그대로 폭이 넓은(Broad) 길인데, 우리의 여의도같은





섬인 맨해튼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오래된 거리를 말한다. 수직으로 연결되는 거리인 애비뉴들 중에서는 가장 길며, 맨해튼 전체를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원래는 네덜란드식 명칭인 브레데 베그(Brede Weg)에서 처음 기인됐다는 설도 있는데, 이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야 어찌 됐든 오늘날 맨해튼의 가장 변화한 거리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 19로 관광객들이 급감하기 이전까지 온갖 상점과 차량, 인파로 늘 북적이는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였다.

물론 공연 애호가들에게 브로드웨이란 단순한 거리 이름 이라기보다 세계적인 뮤지컬 공연가의 또 다른 이름으로 통한다. 브로드웨이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많은 수의 전문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40번가(street)에서 54번가, 그리고 6번가(avenue)에서 8번가의 직사각형 구역이다. 그래서 이곳을 극장구역(Theater District)이라 부르는데,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을 만큼 매력적인 장소다. 특히 브로드웨이와 42번가가 만나는 타임즈 스퀘어는 극장 구역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런 전제를 염두에 두고 보면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활어처럼 펄떡이고, 살아 숨 쉬듯 꿈틀대는 뉴욕의 공연가 이야기를 그 모습 그대로 구현해 보겠다는 제작진의 숨은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타이틀이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영어 제목은 '42nd Street'

이다. 브래드포드 로페스가 쓴 소설이 원작인데, 바로 그곳 맨해튼 42번가의 또 다른 이름인 '그레이트 화이트 웨이(Great White Way)'의 전설적인 히트 메이커이자 연출가인 줄리안 마쉬가 어떻게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완성해가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미 배경이 된 스토리 자체가 꽤 인기가 높아서 뮤지컬 등장 이전인 1933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뮤지컬은 그로부터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뮤지컬이 만들어져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영화보다 한참 뒤인 1980년의 일이다. 요즘에는 흔하지만 영화를 무대화한 뮤지컬로는 1974년작 '지지'에 이어 두 번째 시도로 초창기 무비컬의 대표적인 사례라 부를 만하다. 훗날 '캐츠'의 고향이자 '맘마 미아!'가 상연됐던 것으로 유명한 윈터 가든 극장에서 처음 막을 올렸고, 그 후 머제스틱 극장과 세인트 제임스 극장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자그마치 3,486회 연속공연이라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장기공연 기록을 수립했다. 그야말로 '화려한' 생명력과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누렸던 보기도문 흥행작이었다. 관객이 찾지 않으면 언제라도 문을 닫는 살벌한 시장경제가 살아 숨 쉬는 브로드웨이 공연가이기에 당시 10년에 가까운 연속 공연기록은 가히 놀랄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리바이벌 무대가 이어지는 이유이자 그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뮤지컬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연이 흥행되자 여러 뒷이야기들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유명한 일화 중에는 공연이 시작되는 날, 세상을 떠난 연출가 겸 안무가 고어 챔피언에 얽힌 내용도 있다.

첫 공연의 막이 올러지던 날, 가히 폭발적인 관객들의 환호로 11번의 커튼콜이 이어진 후 프로듀서인 데이빗 머릭은 무대에 등장해 몇 시간 전 고어 챔피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쇼의 흥행을 위해 출연자와 기술 스텝, 심지어 챔피언의 애인에게까지 비밀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모두에게 이 사실을 공표했던 것이다. 순간 무대는 환호에서 정적과 충격으로 뒤바뀌었고, 다음날 뮤지컬의 흥행과 연출가의 극적인 죽음은 모든 언론의 1면을 장식하게 됐다. 결국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비정하고 심지어 냉정하기까지 한 쇼 비즈니스의 냉엄한 현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상이 아닌 현실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됐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고어 챔피언의 유작이자, 비정한 비즈니스맨 데이빗 머릭 최후의 흥행작이 됐다.

초대박 흥행 뮤지컬로서의 존재감 못지않게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예술적 완성도나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높음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초연이 됐던 1980년, 이 뮤지컬은 토니상 8개 부문의 후보작으로 올라 최우수 작품상과 안무상을 거머쥐었다. 물론 이 상들은 챔피언의 영정에 바쳐진 승전보이기도 했다. 2001년 리바이벌 무대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 그해 8개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돼 최우수 리바이벌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토니상 무대를 주름잡을 만큼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미국 뮤지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던 것은 1996년의 일이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초대형 규모의 대작 뮤지컬로 완성됐는데, 선진화된 공연 제작 시스템을 그 모습 그대로 적용해보려는 국내 최초의 실험이자 일대 ‘사건’이었다. 그때 화려한 신예로 등장했던 폐기 소녀 역의 임선애는 이제 중견급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을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무대는 여전히 꿈틀대는 생명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2020년 꾸며진 우리말 프로덕션에선 탤런트 출신인 송일국과 이종혁이

뮤지컬 배우 양준모와 함께 매력적인 연출자 줄리안 마쉬로, 역시 관록의 뮤지컬 여배우인 최정원과 정영주, 배해선이 도로시 브룩으로 등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폐기소여로는 예쁜 외모만큼이나 출중한 가창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뮤지컬 배우 오소연이 김환희와 함께 등장했고, 미워할 수 없는 바람둥이 매력남 빌리 로러 역으로는 정민과 서경수가 무대에 합류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 캐스팅이 흥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대한민국 뮤지컬 극장가에서 오히려 다양한 연령의 전문 배우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실험정신과 원숙함은 이 작품만의 남다른 품격과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찬사도 등장했다.

다른 뮤지컬들과 차별되는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남다른 특별함은 하나 더 있다. 바로 앙상블들이 만들어내는 매력이다. 2000년대 초반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린 앙코르 공연에서는 유명 배우의 얼굴이나 공연장면 대신 무명 코러스 걸들의 늘씬한 각선미 사진을 이 작품의 홍보 포스터로 활용했다. 쇼 뮤지컬로서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전략이었던 셈이다. 요즘 우리말 버전도 바로 그 앙코르 버전의 무대와 포스터를 그대로 차용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역동적인 안무가 펼쳐지는 가운데 현란한 발 박자에 맞춰 앙상블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탭댄스를 추는 장면은 가히 이 작품의 백미를 이룬다.

석 달여 연습동안 모든 배우들이 5~6Kg씩 감량될 정도로 격렬한 연습을 거쳐야 했다는 후문도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다. 물론 덕분에 관객들은 사치스런 극장체험을 라이브로 경험할 수가 있다. 뮤지컬에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명작 중의 명작이다.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6

흙의 언어, 흙길의 작가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1. 흙길을 가는 작가

흙길을 가는 작가 이승희.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기획되었다. 클레이아크 전관을 채우고 있는 <2020 타오(陶/道)>의 작품세계는 그야말로 도자의 심해를 유영하는 기분이다. ‘흙으로 사유를 축적하다, 흙으로 도자를 그리다, 흙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실험하다, 공간과 시간으로의 확장’으로 구성된 전시는 도자이면서 도자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작가가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작가 이승희의 작업 여정은 경덕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이후 경덕진에서 10여년 간의 작업 기간이 말해주듯이, 치밀한 계획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작가에게 온 우연을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이면서 전개되어 간 듯하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적인 태도는 끊임없는 실험과 다양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러한 여정은 작업 궤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가는 염직과 도자를 전공하였으면서도 ‘도자기작가’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었다고 한다. 아마도 사물에 대한 직관과 통찰, 작품을 통한 멋진 구체화를 상상하며 ‘예술가’라는 이름에 따라 붙는 신비감에 비해 도자기 작가라는 이름처럼 장르에 한정된 이름은 신비감이 사라지고 다소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무턱대고 선생은 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결심과 비슷한 치기(稚氣)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치기는 보다 드높은 고양을 향한 태도이기에 항상 순수한 열정이 뒷받침되고 있다.

클레이아크 전시는 이런 이승희 작업의 면면과 예술가로서의 태도를 잘 조명한 전시이다. 기획자가 말하듯이 작가의 '중간 결산'인 〈2020 타오〉전은 '물, 불, 흙, 공기'에 대한 진지한 그의 사색과 실험을 그리고 그의 질문과 도전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이 길은 '흙의 언어'를 조탁하는 연금술의 도정(道程)이면서 동시에 막대한 노동으로 점철된 예술가의 진지하고도 고된 존재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승희는 이를 '흙길을 간다'고 이야기한다.

2. 당대성을 이끄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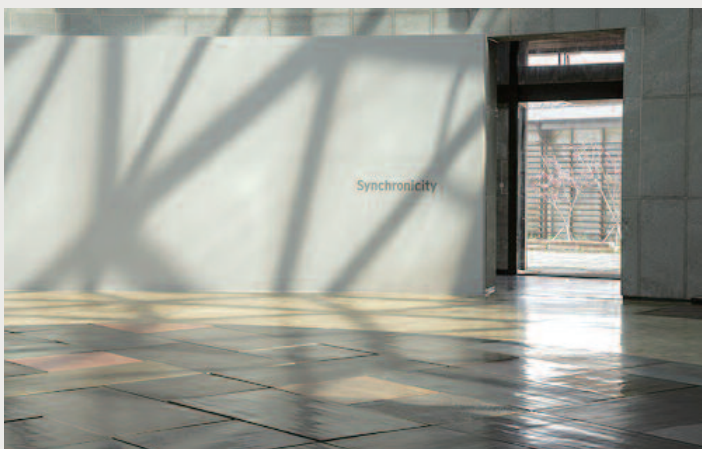
클레이아크에 전시된 작품은 〈사유된 문명〉, 〈도자회화〉, 〈백자 시리즈〉, 〈타오 시리즈〉, 대나무 설치와 도자관 설치(〈동시성(synchronicity)〉) 그리고, 형상을 지우며 형상 너머로 나아간 최근작(〈8mm의 공간, 종이처럼〉)으로 구분된다. '사유된 문명'에서 작가는 도자기의 전통에 갇힌 흙을 형(形)과 기(器)에서 해방시켜 풍요로운 흙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실험하고 있다. '신문지 위에 놓은 흙덩어리'를 낯선 만남으로 착각하지만 신문지조차 도자이므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미지 실험은 가히 놀랄만하다. 고졸하고 거친 형태의 덩어리 흙과 철판의 만남, 덩어리에서 자라나는 플라스틱 호스들 등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통해 흙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아직 드러나지 못한 흙의 언어를 탐색한다. 작가는 이때 흙덩어리를 마치 발견된 오브제처럼 다룬다. 바닥에 놓기도 하고 매달기도 하며, 긴 고무호스로 연결되기도 한 '사유된 문명'의 설치는 '물, 불, 공기, 흙'아 너는 무엇이나, 흙 너는 또 무엇이나, 불의 기술인 도자는 무엇이나 등을 물으며 덩어리-공간의 가능성을, 새로운 의미의 잠재성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만남과 이로 인해 형성된 관계는 흙을 한갓 재료의 지위에서 의미망의 가능체로서 그 위엄을 드높이며, 자연에서 인위로 넘어오는 우리 문명의 생성 근저로부터 흙의 지위와 가능성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클레이젠(clayzen)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한 도자회화는 '흙의 언어를 만들고자 한' 작가 열망의 결실이다. 흙물을 수십 번 쌓으면서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완성되는 도자회화 작업은 아이러니하다. 쌓으면서 평면이 되고 평면이 된 도자는 입체를 구체화시키는 도자기의 프로필 자체가 되니 말이다. 도자회화는 도자의 양감(양감)과 비색(秘色) 모두를 평면 안에 그대로 되살리면서도 공간차원의 축소와는 달리 정신성의 깊이는 더욱 확장되고 깊어진다. 전통의 한 복판에서 흙의 언어를 길어낸 도자회화 양식은 통념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입체와 평면의 경계도 넘어서서 분류될 수 없는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제시한다. 도자회화로 결정(結晶)된 흙은 언어는 적합하고도 풍성하다.



언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켜기문자 점토판처럼 보이는 초기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사유된 문명' 연작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문자, 의미, 상상과 습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문자, 의미, 상상이 뒤얹혀 이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어휘집을 만든다. 이 중 어느 고리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의미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문자의 기능은 중지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 앞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 자유로이 상상하게 된다. 이에 기반 한 '문자판 도상'은 점자가 놓은 판과 같은 형상의 투박한 기(器)의 결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신의 작업을 촬영하여 이를 복사한 이미지와 트레이싱지를 겹쳐 '언어처럼' 착각 하도록, '언어인척 하는' 작품에서도 이 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점자판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언어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것은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점자를 닮은 것일 뿐인 표면인 것이다. 우리가 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너머의 어떤 의미를 찾게 된다. 작가는 이런 언어와 해석욕망, 소통의 관습을 도자 형상에 도입한 것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의 문자들, 예를 들어 켜기문자나 아랍어 등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나 기능에 무관하게 감각적으로 그 조형성에만 이끌린다. 작가는 이집트 그림문자 앞에서 신비로운 감정에 휩싸여 문자판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회계와 관련된 장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충만감의 추락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경험이 '언어 같은' 무엇을 조형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게 한 것 같다. 즉 아직 모르는 의미 때문에 감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을 자신의 조형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언어인체하며 점토를 나열하고, 아직 알려지지 못한 의미를 담아 전개되는 기호 그리고 그에 대한 상상의 힘이 '언어로서의 흙의 기능성'을 물어가는 실험의 바탕이 된 것이라 파악된다. 작가가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우연' 역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의미로 가득 찬 어떤 사건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 현재의 사건이다. 발견된 오브제들은 모두 우연적인 만남의 기호이자 무의식의 언어이다.

〈타오(TAO)〉시리즈에서 흙의 언어는 '도자에 그린 도자'라는 문구에 요약해 있듯이 도자를 통해 도자를 설명하는 매우 탁월한 독창적 언어이다. 입체를 평면으로 축소하면서도 핵심은 더 명료하고 풍부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동시대 예술에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고 있다. 섬세하기 그지없는 백자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 기물들,

분할된 면의 도입, 면과 형상의 병치, 민화의 현대적 해석 등, 전통과 현대의 일상을 도자 회화에 담아내면서 독자적인 조형언어로서 흙의 언어는 더욱 풍성해지며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이에 머물지 않고 형상을 지움으로써 모든 관계에 대해 흙의 언어를 개방한다. 이는 관계의 복잡성과 개방성이라는 시대 정신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동시성(synchronicity)〉, 둥근 천장의



자연광 아래 놓인 비슷한 듯 다른 도자관은 주변의 모든 요소들, 여러 관객의 시점과 동세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공간 전체를 시시각각 조형한다. 이로써 〈동시성〉은 자연과 인간의 광대무변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다. 우연의 관계망에 작품을 맡기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유연하면서도 풍부한 도자의 언어가 되고 있다. ‘동시성(synchronicity)’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순간 새롭게 형성되는 횡적인 관계망을 통해 작가는 현재의 가치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작가는 형상인데 형상을 넘어서는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형상인 듯 아닌 듯 우리 눈을 속이는 작품인데, 이는 ‘무엇처럼’ 우리 눈을, 우리의 감각을 속이는 작품이다. 미묘한 색의 변화,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떠오르는 화면, 명상적인 색면의 깊이가 매우 섬세(纖細)하다.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띄어 펴 본 오래 된 종잇장처럼, 책 모서리와 살짝 어긋나도록 얹혀있는 종잇장처럼, 작품은 ‘무엇처럼’ 보이면서 도자로 존재한다. 최근작들은 이렇게 ‘~같은’ 작업들로서 위장(偽裝) 속에 흔들리는 이미지들 사이사이로 오래된 시간의 결이 지나간다. 흙과 유약을 다루는 작가의 고도한 솜씨에 감탄할 뿐이다.

대나무 설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나무 마디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대나무를 완성한다. 도자로 모듈화한 것 만으로도 크게 주목할 일인데 조립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내이든 실외이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이 작품은 그야말로 가변설치의 대명사 격이다. ‘시간과 공간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전시된 도자 대나무는 일반적인 청죽(靑竹)이나 오죽(烏竹), 소동파의 붉은 죽까지 모든 것이 구현된다. 설치작품은 시적(詩的)인 공간으로서 현실 공간 속에서 환상이라는 또 다른 현실공간을 만들어 준다.

오브제처럼 취급되는 거친 표면의 도자들, 사유된 문명 시기에 보이는 사물과 흙의 우연한 만남, 미려(美麗)한 도자 회화와 대나무 설치 등 이들 작품 사이를 거닐면 흙의 언어로 구성된 한 폭의 문인화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두루마리 그림의 중간쯤에 있을 법한 흙의 산림(山林) 속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새로움을 개척해온 작가의 흙길이 도전과 실험이라는 인고(忍苦)의 길이였다면 관객은 그 흙길을 즐거움으로 다시 걷는 것이 아닐까 한다.

09 2020

공연가이드

09.03(목) 20:00	[무용]	여정을 잇다_예술감독전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전석:10,000원
09.04(금) 20:00					
09.05(토) 10:00	[대관]	제30회 전국 무용 경연대회	소공연장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무료
09.08(화) 19:30	[대관]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무료
09.08(화) 20:00	[대관]	제11회 김소영민족소리원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9'	소공연장	김소영민족소리원	전석:10,000원
09.10(목) 19:30	[대관]	테너 이지윤 독창회	소공연장	이지윤(개인)	무료
09.11(금) 19:00	[대관]	첼리스트 방지성 귀국 독주회	소공연장	방지성(개인)	무료
09.11(금) 20:00	[교향]	마스터피스Ⅲ	대공연장	시립예술단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09.12(토) 17:00	[대관]	제9회 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울산태화강합창단	무료
09.13(일) 19:00	[대관]	울산 YMCA합창단 2020년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울산 YMCA합창단	무료
09.13(일) 19:00	[대관]	이척 춤-맥을 잇다 in 11years	소공연장	김미자무용단	무료
09.15(화) 19:30	[대관]	한국창작무용 전화영 "디딤"	소공연장	김외섭무용단	무료
09.16(수) 19:00	[대관]	제16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피아노아카데미(황소원)	무료
09.18(금) 11:00	[렉처]	전원경의 그림콘서트	소공연장	전시교육	전석:10,000원
09.18(금) 17:00	[대관]	한경필하모닉 청소년음악회	대공연장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석초대(무료)
09.19(토) 17:00	[대관]	울산로알예술단 "Artista Concert"	소공연장	울산로알예술단	무료
09.20(일) 17:00	[대관]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전석:10,000원
09.22(화) 19:30	[대관]	제4회 비방양상블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비방양상블	무료
09.22(화) 19:30	[합창]	제115회 정기연주회 "Bach: Magnificat"	대공연장	시립예술단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09.25(금) 19:40 19:00	[대관]	2020 에이팜(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소공연장 아외공연장	(재)울산문화재단	무료
09.26(토) 19:00 19:40	[대관]	2020 에이팜(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소공연장 아외공연장	(재)울산문화재단	무료
09.27(일) 15:40 15:00	[대관]	2020 에이팜(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소공연장 아외공연장	(재)울산문화재단	무료

※ 공연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9 2020

전시가이드

9. 1. ~ 12. 9. (100일간)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장소 상설전시장(갤러리 씬)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참여 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 사진 등) 전시
9. 3. ~ 9. 7. (5일간) 제24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서예협회	한국서예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 매년 개최하여 심사한 서예작품 500여점 전시
9. 9. ~ 9. 13. (5일간)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남구문화원	전국 공모 한마음미술대전의 입상작품 및 추천, 초대작가 작품 250여점 전시
9. 14. ~ 9. 18. (5일간) 제16회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수채화협회	천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역동적인 산업경계가 어우러진 울산에서 대한민국 수채화를 대표하는 남부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 400여점 전시
9. 19. ~ 9. 23. (5일간)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울산·부산·거제 지역 초상을 딴 '업(UP)'을 주제로 세 지역 간 미술 교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양하는 미술작품 100여점 전시
9. 25. ~ 9. 27. (3일간)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시 문화예술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음악산업 전문가와 울산시민에게 선보이는 2020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의 지나온 발자취 전시
9. 24. ~ 9. 29. (6일간)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환경미술협회	울산환경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의 환경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100여점 전시
9. 25. ~ 9. 29. (5일간)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제2전시장	주최 개 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주제로 통찰을 통한 관조적 입장에서 본질에 다가선다는 주제의 사진작품 30여점
9. 25. ~ 9. 29. (5일간)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한국화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울산한국화회 소속 작가들이 제주 등 타지역 작가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전통수묵, 수묵담채 등 한국화 작품 50여점 전시

※ 전시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9

2020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실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6

7

8

-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19:30
- 제11회 김소영민족소리원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9'
20:00

13

- 울산 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 이척 춤-맥을 잇다 in 11years
19:00

14

15

- 한국창작무용 전화영 "디 담"
19:30

20

-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21

22

- 제4회 비방양상을 정기연주회
19:30
- 제115회 정기연주회
"Bach: Magnificat"
19:30

27

- 2020 에이팜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15:40 / 15:00

28

29



WED		THU		FRI		SAT	
2		3		4		5	
		● 여정을 잇다_예술감독전 20:00		● 여정을 잇다_예술감독전 20:00		● 제30회 전국 무용 경연대회 10:00	
9		10		11		12	
		● 테너 이지윤 독창회 19:30		● 첼리스트 방지성 귀국 독주회 19:00 ● 마스터피스Ⅲ 20:00		● 제9회 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16		17		18		19	
● 제16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9:00				● 전원경의 그림콘서트 11:00 ● 한경필하모닉 청소년음악회 17:00		● 울산로알예술단 "Artista Concert" 17:00	
23		24		25		26	
				● 2020 에이팜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19:40 / 19:00		● 2020 에이팜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19:00 / 19:40	
30							

전시일정

9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1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1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6회 남부위티칼라 페스티벌

1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6회 남부위티칼라 페스티벌

2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2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2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2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2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2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WED	THU	FRI	SAT
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1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9회 한마음 미술대전
1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6회 남부위터칼라 페스티벌	1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6회 남부위터칼라 페스티벌	1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제16회 남부위터칼라 페스티벌	1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2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부산·거제 현대미술 교류전	2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2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2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 울산환경미술협회 회원전 ●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 제12회 옥진명 사진전 ● 제30회 울산한국화회 교류전
3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III부)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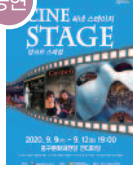
중구문화의전당

전시



2020 중구문화의전당 기획전시
박구환작가초대展「마음으로 찍은 풍경」
2020.9. 9.(수) 10:00 ~ 26.(토) 18:00
무료

공연



2020 영상으로만나는명작무대
「씨네스테이지_앙코르스페셜」
2020.9. 9.(수) ~ 12.(토) 19:00
무료

상영



2020 중구문화의전당 어린이명작무대
명작발레「헨젤과 그레텔」
2020.9.12.(화) 14:00 / 17:00
전석2만원(48개월 이상관람가)

공연



2020 중구문화의전당 아츠홀릭「판」
곽윤찬 재즈 콘서트「All that Jazz」
2020.9.17.(목)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이상관람가)

공연



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시네마클래식 KOREA
2020.9.19.(토) 17:00
전석 1만원(초등학생이상관람가)

북구문화예술회관

상영



청춘극장
「퍼펙트맨」
2020. 9. 9.(수) 14:00
무료(만12세 이상 관람가)

상영



가족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
2020. 9. 30.(수) 19:00
무료(전체관람가)

공연



해설이 있는 야외 오페라극장
「마술파리」
2020. 9. 12.(토) 18:30
무료(전체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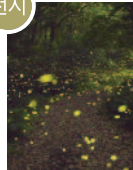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울주피크닉콘서트
2020. 9.12.(토) 19:00 / 온양체육공원
M석 5천원 / C석 10,000원 / F석 15,000원

전시



2020 울주아트 지역작가 공모
장원정 초대전
2020. 9. 9(수) ~ 9. 21(월) / 울주문화예술회관
무료

현대예술관

공연



여협스케치 30주년 콘서트
음악동창회
2020. 9. 11.(금) 오후 8시 / 대공연장
1층석 88,000원 / 2층석 66,000원

전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2020. 7. 30.(목) ~ 11. 1.(일) / 미술관
일반 10,000원 / 중·고등학생 이하 8,000원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052)226-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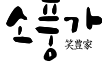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을 소개합니다.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북구 강동산하2로 7 / (052-980-1101)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문의 바람)

유료회원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남구 삼산로 282 / (052) 960-4300 이용금액 15~5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신라 스테이 남구 삼산로 200 / (052) 901-9000 이용금액 60~7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스타즈호텔 울산 남구 남중로 65 / (052) 922-4000 객실 50~70%할인, 식당-베이커리 1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밀레(달동점) 남구 삼산로 151 / (052) 260-0022 정상가의 10%할인(용품 제외) 유료회원	 라비타(LAVITA) 남구 월평로 197 / (052) 245-1111 정상가의 10~20%할인 유료회원	 (주) MH컨벤션 (구) 목화웨딩홀 남구 삼산로 226 / (052) 260-5555 웨딩패키지 20% 할인, 사진촬영 50% 할인 뷔페 인당 2,000원 할인(웨딩 뷔페 인당 1,000원 할인) 유료회원
 소풍가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052) 275-3579 이용금액 5%할인 유료회원	 디엘리 커피 남구 신정로33번길 30 / 010-8348-4800 음료 5%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유료회원	 울산진산면세점 중구 번영로 363 / (052) 281-5555 면세 판매가에서 18%할인 유료회원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화관 052) 275-9623~8,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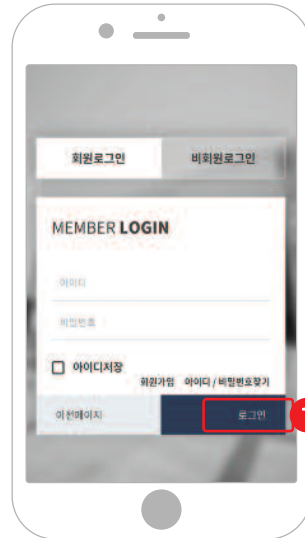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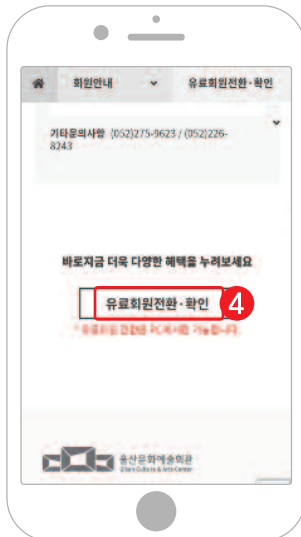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회원증 발급 및 회원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예술
감독전

여
정
을
맞
다

[illegible]

Dr. Yoonhee Park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Behavior, and Society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he is also a senior research advisor at the Center for Communications Programs. Dr. Park has a PhD in Epidemiology fro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a Master of Public Health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She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reproductive health for over 10 years. Dr. Park is currently leading a research team that is studying the impact of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on the use of modern contraceptives in rural Bangladesh. She is also a co-author of a book on reproductive health in Bangladesh. Dr. Park is a frequent speak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peer-reviewed journals. She is also a member of the American Society for Human Sexuality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Health.



강원도립무용단 | 윤혜정

2020. 9. 3.(목)~9. 4.(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전석 1만원(회원 30%, 단체 10인이상 20%, 학생 및 청소년 50% 할인) 공연문의_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